

## 주요 노동동향

### ● 생산 및 물가 동향

#### ◆ 2024년 4월 생산은 전월대비 1.1% 증가(전년동월대비 3.1% 증가)

- 전 산업 생산은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1.1% 증가하였음.
  - － 전년동월대비로는 광공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건설업에서 모두 생산이 늘어 3.1% 증가하였음.
-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컴퓨터 등에서 줄었으나, 자동차, 화학제품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2.8% 증가하였음(전년동월대비 6.5%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보건·사회복지 등에서 줄었으나, 도소매, 운수·창고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0.3% 증가하였음(전년동월대비 2.0% 증가).

#### ◆ 2024년 4월 소비는 전월대비 1.2% 감소,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0.2% 감소

- 소매판매액지수는 화장품 등 비내구재(0.4%), 의복 등 준내구재(0.5%)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승용차 등 내구재(-5.8%)에서 판매가 줄어 전월대비 1.2% 감소하였음(전년동월대비 2.6% 감소).
-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0.3%)에서 늘었으나,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0.4%)에서 투자가 줄어 전월대비 0.2% 감소하였음(전년동월대비 2.3% 감소).
-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대비 5.0% 증가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전월대비 14.2% 증가하였음.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기(월)대비, ( ) 안은 전년동월대비)

		연간			분기				분기				월		
		2021	2022	2023	2022				2023				2023	2024	
					1/4	2/4	3/4	4/4	1/4	2/4	3/4	4/4	4월	3월p	4월p
생산	전 산업	5.4	4.6	1.0	1.2	1.2	0.3	-0.7	0.1	0.6	1.0	0.7	-1.1	-2.3( 0.1)	1.1( 3.1)
	광공업	8.5	1.0	-2.6	2.5	-2.2	-3.6	-4.8	0.4	2.6	1.3	2.2	-1.0	-3.0( 1.0)	2.2( 6.1)
	제조업	8.8	0.9	-2.6	2.3	-2.2	-3.7	-4.9	0.3	3.0	1.3	2.2	-1.0	-3.3( 0.7)	2.8( 6.5)
	건설업	-6.7	2.8	7.3	-1.5	1.5	1.5	4.3	2.8	1.1	1.1	-2.5	2.1	-10.2(-3.4)	5.0( 0.8)
	서비스업	5.0	7.0	3.2	0.6	3.3	1.6	0.3	1.0	0.0	1.0	0.3	-0.3	-1.1( 0.9)	0.3( 2.0)
소비	소비재 판매	5.8	-0.3	-1.5	-0.9	-0.7	0.8	-1.5	0.6	-0.5	-1.9	0.4	-1.5	1.1(-3.4)	-1.2(-2.6)
투자	설비투자	9.6	3.3	-5.4	1.8	-1.5	9.6	-1.5	-8.0	1.0	-3.1	3.1	0.1	-6.3(-4.5)	-0.2(-2.3)
물가		2.5	5.1	3.6	1.6	1.9	1.1	0.4	1.1	0.6	1.0	0.7	0.3	0.1( 2.9)	0.1( 2.7)

-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을 포괄함.
- 3) 2022년 이후 전 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23년 5월, 2024년 4월, 2024년 5월 기준임.
- 5) p는 잠정치임.
- 6) 생산, 소비, 투자의 분기 및 월 수치는 계절조정계열 전기(월)대비, 연간 수치는 원계열 전년대비임.
- 7) ( ) 안은 원계열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 ◆ 2024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상승(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0.1%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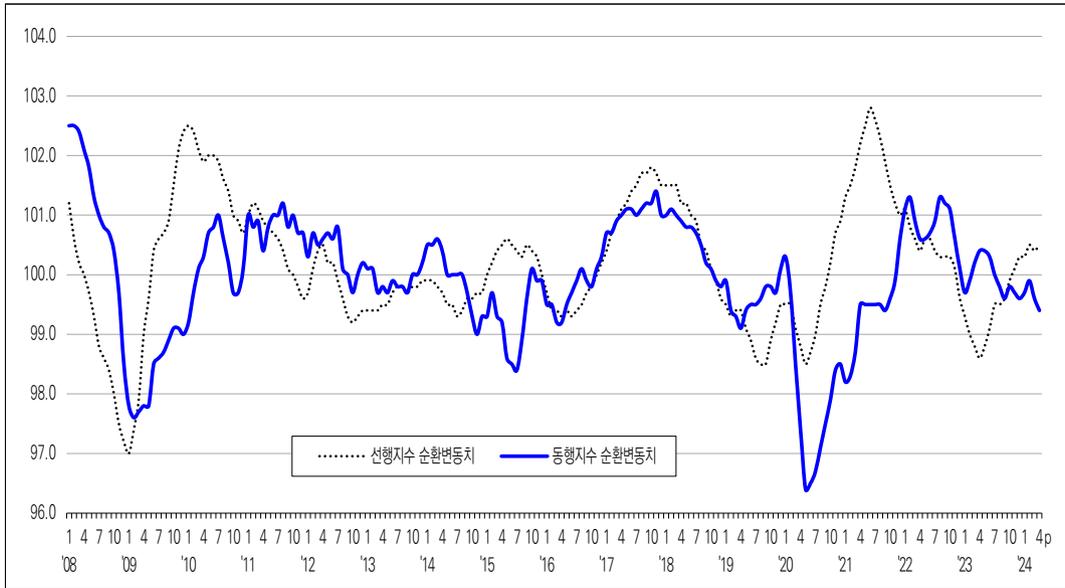
○ 2024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10(2020=100)으로 전월대비 0.1% 상승하였음(전년동월대비 2.7% 상승).

- 소비자 물가 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월대비 교통(0.6%), 의류·신발(0.6%), 음식·숙박(0.2%), 오락·문화(0.3%), 보건(0.2%), 주택·수도·전기·연료(0.1%), 교육(0.1%), 통신(0.1%)은 상승하였고, 기타 상품·서비스는 변동이 없었으며, 식료품·비주류음료(-0.7%), 가정용품·가사서비스(-0.2%), 주류·담배(-0.2%)는 하락하였음.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은 전월대비 0.2% 하락하였고, 식품 이외는 전월대비 0.1% 상승하여 전월대비 0.1% 하락하였음.

◆ 2024년 4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보합,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4% 증가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하락하였음.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상승하였음.

[그림 1]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주 : 1) p는 잠정치임.  
 2)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동행지수는 2020년=1000이 기준.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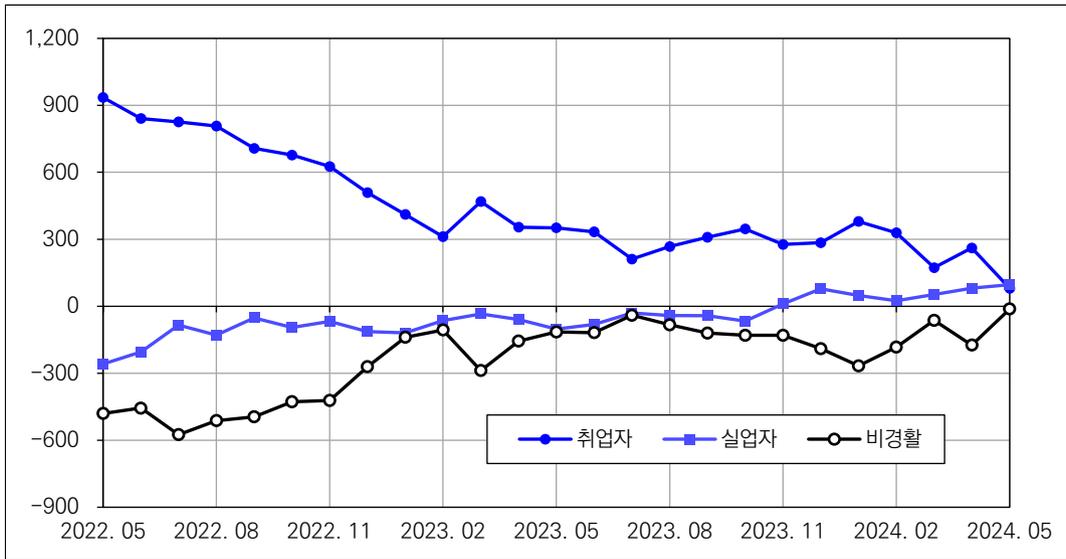
(이기쁨,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고용 동향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폭 감소, 전월대비 취업자 감소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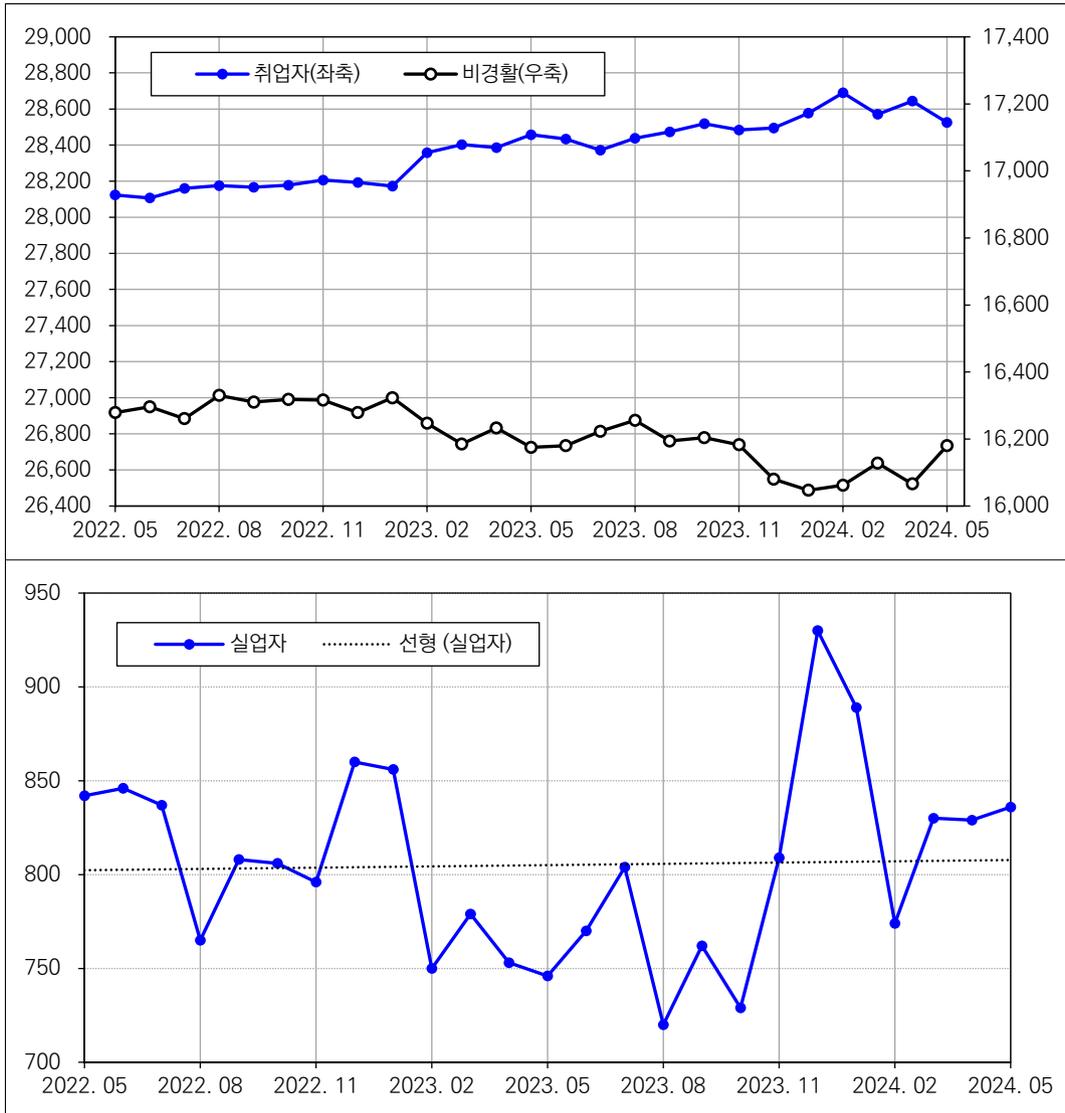
- 2024년 5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8만 명 증가하였음(전월대비<sup>1)</sup> 11만 7천 명 감소).
  - (연령별) 20대 여성 취업자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30대 여성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취업자가 증가 중임.
  - (제조업)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이 감소하였고, 전월대비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로 전환되었음.
  - (서비스업) 도소매업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고용은 양호한 모습임.
  - (종사상 지위별) 건설업, 제조업에 종사하는 상용직이 감소하였음.

[그림 1] 원계열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 증감 현황(상) 및 계절조정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중), 실업자(하) 변화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1) 본고에서 전월대비 수치는 통계청 계절조정계열 자료를 활용함.

[그림 1]의 계속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별)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전월대비 취업자가 감소하였고,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폭이 줄거나 감소폭이 늘었음.

- 20대 청년층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늘었는데, 간호간병 관련(여성·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상용직·전문가) 고용 감소폭이 컸음.
- 20대 남성은 건설업, 금융보험업에서 취업자가 감소하였음.

- 30대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증가폭이 다소 줄어들었으며, 여성 고용이 기존에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남성 고용이 도소매, 운수창고, 교육서비스 중심으로 부진하였음.

〈표 1〉 연령별 취업자 동향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15~19세				20대				30대			
	3월	4월	5월	(전월비)	3월	4월	5월	(전월비)	3월	4월	5월	(전월비)
취업자	-35	-12	-6	( 11)	-97	-77	-168	(-49)	91	132	74	(-27)
실업자	7	7	8	( 2)	-44	4	21	( 9)	17	-6	18	( 12)
비경황	3	-23	-33	(-16)	-65	-133	-65	( 15)	-111	-123	-84	( 16)
실업률	5.4	4.7	4.1	( 0.4)	-0.8	0.3	0.8	( 0.3)	0.2	-0.2	0.3	( 0.2)
고용률	-1.5	-0.5	-0.2	( 0.5)	0.4	0.8	-0.6	(-0.6)	1.3	1.9	1.0	(-0.4)
	40대				50대				60세 이상			
	3월	4월	5월	(전월비)	3월	4월	5월	(전월비)	3월	4월	5월	(전월비)
취업자	-79	-90	-114	(-31)	59	16	27	( 24)	233	292	265	(-31)
실업자	5	11	11	( 1)	37	26	13	(-16)	31	39	26	( -7)
비경황	-69	-68	-49	( 16)	-29	33	43	( -1)	210	140	176	( 76)
실업률	0.1	0.2	0.2	( 0.1)	0.5	0.4	0.2	(-0.3)	0.4	0.5	0.3	(-0.1)
고용률	0.4	0.4	0.1	(-0.3)	0.1	-0.5	-0.4	( 0.2)	0.2	0.6	0.3	(-0.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산업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취업자 증감 변화를 살펴봤을 때,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사업시설관리지원 서비스업 등에서 고용이 부진하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고용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표 2〉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월	4월	5월	3월	4월	5월
농림어업	-50	5	-34	-7	56	-38
광업	0	1	-1	0	0	0
제조업	49	100	38	36	37	-36
전기·가스·증기	7	11	8	-5	0	-3
수도·원료재생	-11	-9	-10	1	-3	0
건설업	22	5	-47	-17	-22	-66
도매 및 소매업	-14	-39	-73	-3	-17	-17
운수 및 창고업	58	52	49	10	6	5
숙박 및 음식점업	7	29	80	19	27	36
정보통신업	67	68	47	-6	-11	15
금융 및 보험업	-32	-2	1	-16	13	1
부동산업	-19	-23	-6	11	-3	7
전문·과학·기술	98	45	7	27	-24	-8
사업시설관리지원	-51	-66	-64	-34	-7	1
공공행정·사회보장	52	26	22	-60	-14	2
교육서비스업	-33	-49	-45	-3	-17	12
보건 및 사회복지	50	93	94	-93	33	7
예술·스포츠·여가	-14	15	6	-10	36	-4
협회·단체·수리·기타	-9	-3	13	9	-1	1
가구 내 고용·자가소비	-6	3	-3	7	5	-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 지위별)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감소하였고, 전월대비 상용직 취업자가 감소로 전환되었음.

- 상용직은 산업별로 제조업, 건설업에서 줄어들었고, 도소매, 정보통신, 교육서비스업에서 증가폭이 감소하였음.
- 임시직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증가폭이 늘었음.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월	4월	5월	3월	4월	5월
상용직	286	293	75	42	61	-78
임시직	97	200	249	-157	55	29
일용직	-168	-147	-116	26	-25	-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1	0	4	-26	-4	1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	-35	-94	-114	-7	-23	-9
무급가족종사자	-7	10	-19	41	16	-2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4〉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월	4월	5월	3월	4월	5월	3월	4월	5월	3월	4월	5월	3월	4월	5월
농림어업	11	13	12	2	1	5	-13	-1	5	5	10	8	<b>-33</b>	<b>-22</b>	<b>-43</b>
제조업	18	<b>48</b>	<b>-11</b>	22	52	32	-9	-7	0	10	10	12	7	-4	-1
건설업	12	<b>-2</b>	<b>-40</b>	27	<b>38</b>	<b>19</b>	-40	<b>-49</b>	<b>-43</b>	14	13	-3	5	3	2
도소매	57	57	30	<b>-52</b>	<b>-39</b>	<b>-39</b>	-6	-9	-10	-18	-13	16	0	<b>-32</b>	<b>-41</b>
운수창고	31	35	29	25	21	26	-10	-10	0	2	5	-6	6	-1	-13
음식숙박	1	-2	23	44	<b>59</b>	<b>95</b>	-37	-2	-10	5	-4	5	-13	-22	-6
정보통신	28	42	22	24	13	8	-1	-5	-3	-3	-3	-16	<b>20</b>	<b>20</b>	<b>20</b>
금융보험	-39	-2	-6	8	5	14	-1	-2	-3	-3	0	-2	2	-4	-2
부동산	-11	-5	-10	-19	-14	-2	1	1	-1	6	-2	-1	4	-3	5
전문과학기술	104	39	3	6	14	11	-9	-5	-3	-2	-8	1	-3	3	-3
사업관리지원	12	-8	-9	-6	12	-2	-32	<b>-45</b>	<b>-27</b>	-11	-11	-3	-12	-11	-13
공공행정	25	10	-4	23	17	22	3	-1	4	-	-	-	-	-	-
교육서비스	44	39	17	-77	<b>-77</b>	<b>-54</b>	2	-1	2	1	0	-12	0	-9	-9
보건복지	-5	19	-4	65	<b>86</b>	<b>101</b>	2	-2	0	-10	-10	-3	-3	1	1
예술스포츠	7	10	9	-22	-14	-7	-5	-4	-5	0	7	-4	3	10	2
협회단체	-10	0	17	27	25	19	-13	-12	-11	2	6	7	-14	-22	-15
가구 내 고용	0	-1	-1	-4	2	0	1	4	-3	-	-	3	-2	-3	-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업·비경제활동인구) 실업률이 전년동월대비 0.3%p 증가하였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만 2천 명 감소하였음.

- 1년 이내 일자리 경험이 있는 실업자 중 전직 건설업, 제조업 종사자가 늘었음.
- 남성의 '쉬었음' 사유 비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이 늘었으며, 여성은 '육아·가사' 사유 비경제활동인구의 감소세가 지속 중임.

〈표 5〉 전직 일자리 유무 및 주요 종사산업별 실업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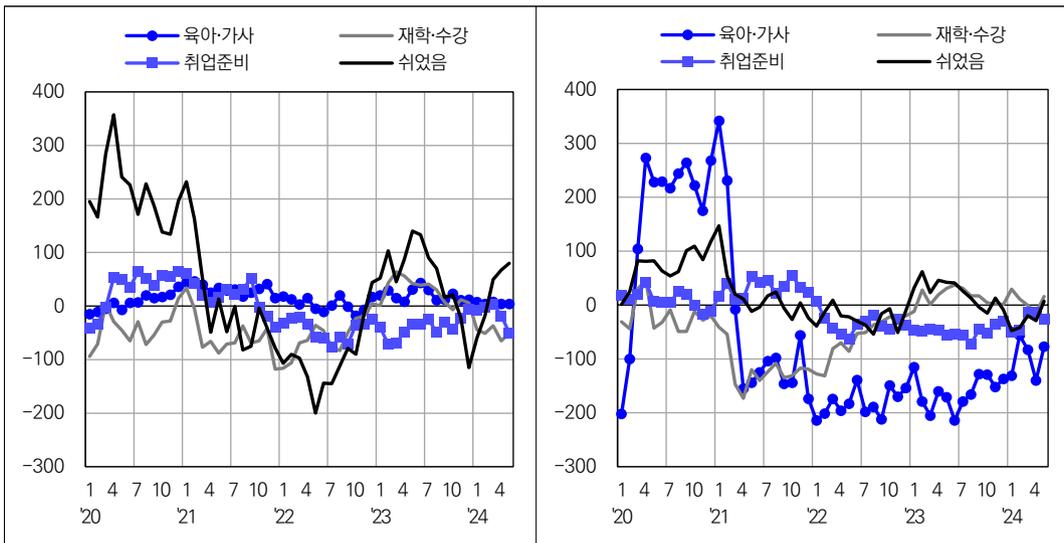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2024년 5월					
	전체	15~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실업자 전체	97	28	18	11	13	26
1년 이내 일자리 경험 유	54	17	11	-1	11	16
농림어업	3	1	0	2	-1	0
제조업	<b>24</b>	<b>12</b>	<b>16</b>	-8	-1	5
건설업	<b>31</b>	3	3	6	<b>11</b>	<b>9</b>
도매 및 소매업	-11	-4	-3	-1	-7	4
운수 및 창고업	7	-2	4	2	0	2
숙박 및 음식점업	-15	-6	1	-3	-2	-5
정보통신업	10	1	2	7	2	-2
금융 및 보험업	5	-1	2	2	1	0
전문·과학·기술	1	6	-3	1	-2	-1
사업시설관리지원	-5	-2	-6	-5	5	4
공공행정·사회보장	0	-1	-1	1	5	-4
교육서비스업	2	3	-1	-2	1	1
보건 및 사회복지	-1	8	-4	-3	-3	2
예술·스포츠·여가	-1	2	-1	-1	-1	-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 성별(좌 : 남성, 우 : 여성) 및 사유별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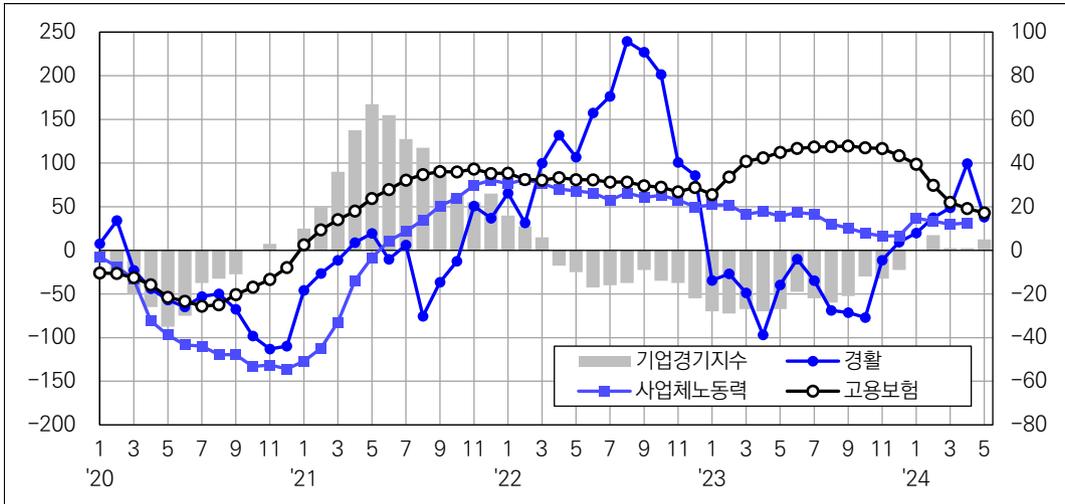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 감소, 건설업 취업자 감소 전환

○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만 8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감소되었으며, 전월대비로는 3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세를 벗어나 5월에 3만 6천 명 감소로 전환되었음.

[그림 3] 제조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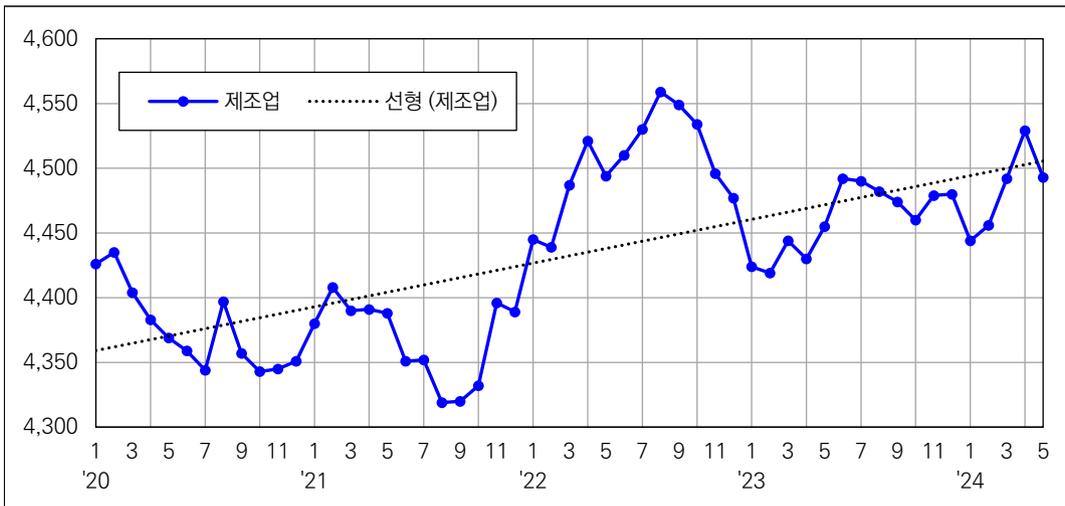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4]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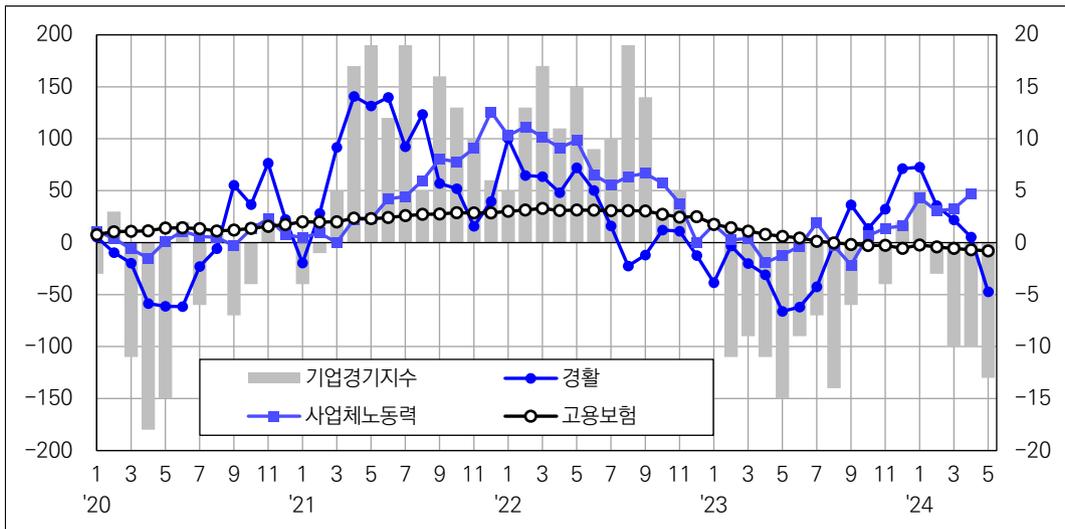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폭 감소는 지난해 기저 변화의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결과이며,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기존 추세를 하회하는 모습으로 전월대비 감소 전환되었음.
- 제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폭 둔화가 지속되는 중이며, 외국인을 제외하면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음.

-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만 7천 명 감소하였고, 전월대비로는 6만 6천 명 감소하였음.
  - 건설업 계절조정 취업자가 4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며, 피보험자도 9개월 연속 감소하였음.
  - 건설업 취업자 수 변동성을 순환변동치의 표준편차로 정의하여 살펴보면, 최근('24년 1~5월) 취업자 수 변동성이 지난 10년간(2013~2023년)의 변동성에 비해 다소 확대되었음.

[그림 5] 건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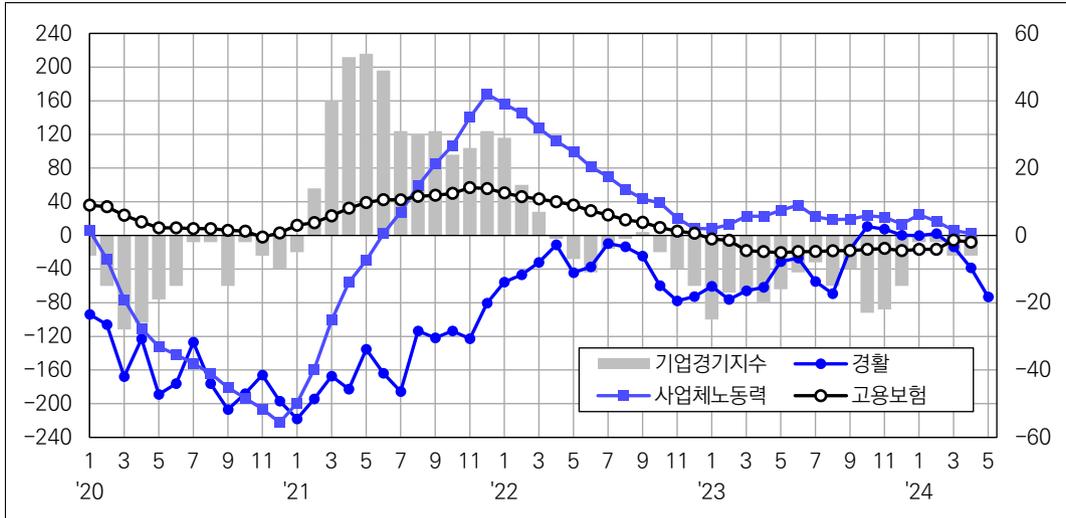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서비스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창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고용 상황이 양호한 반면, 도소매업, 사업시설지원임대 서비스업 등에서 부진하였음.
  - (도소매)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되어 5월 취업자가 7만 3천 명 감소하였고,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 수 증가폭도 둔화되었음.
  - (숙박음식) 취업자 증가폭이 늘어나 5월에는 취업자가 8만 명 늘었음.
  - (운수창고) 기업경기지수는 좋지 못한 모습이지만, 취업자는 증가폭을 유지하며 4만 8천 명 늘었음.

- (사업시설) 최근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취업자 6만 4천 명이 감소하였음.
- (보건복지) 여전히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전 산업 중 가장 큰 취업자 증가폭을 유지 중이며, 5월 취업자는 9만 4천 명 증가하였음.

[그림 6] 도매 및 소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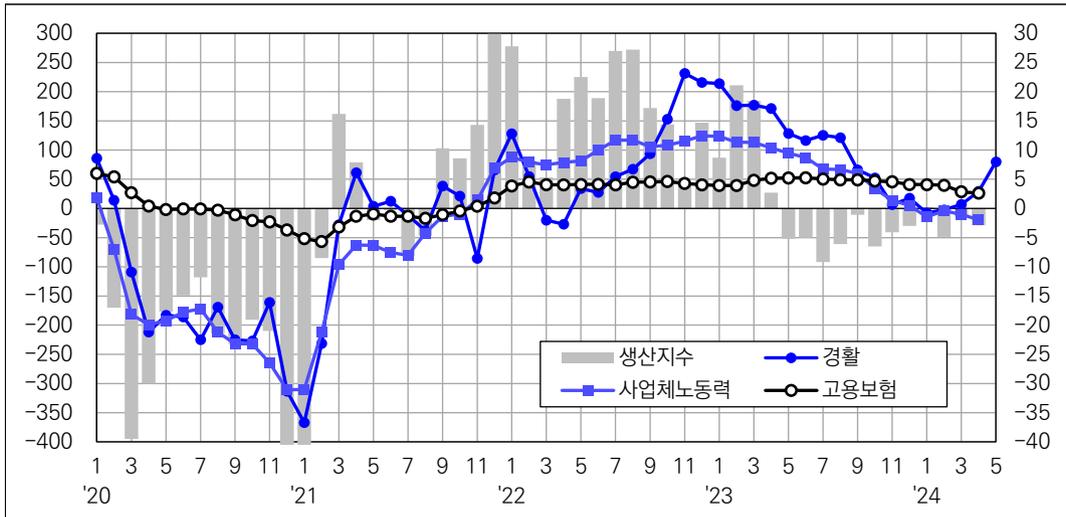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7] 숙박 및 음식점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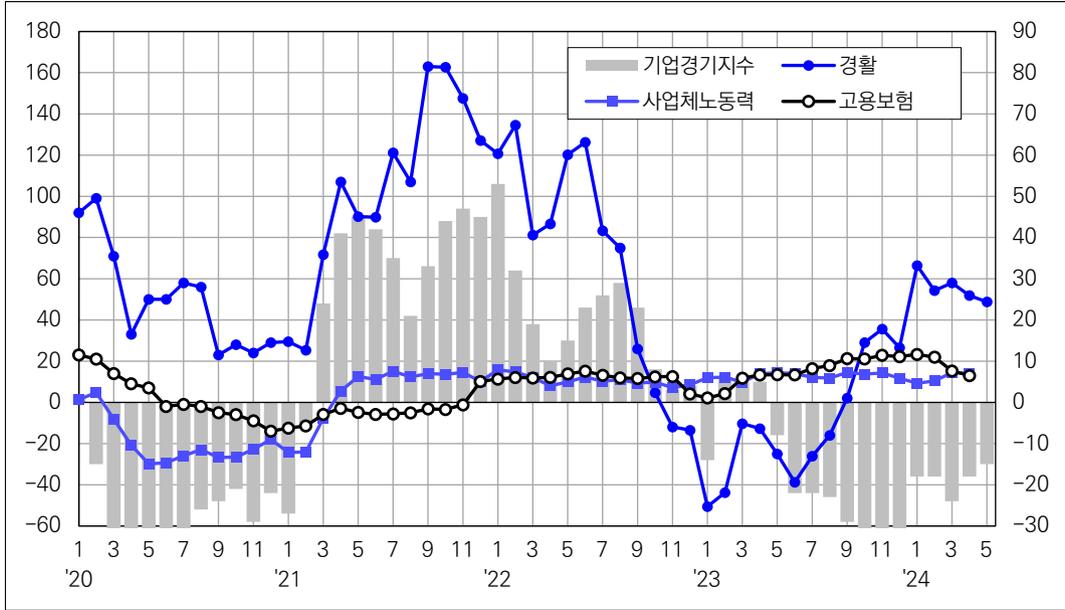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8] 운수 및 창고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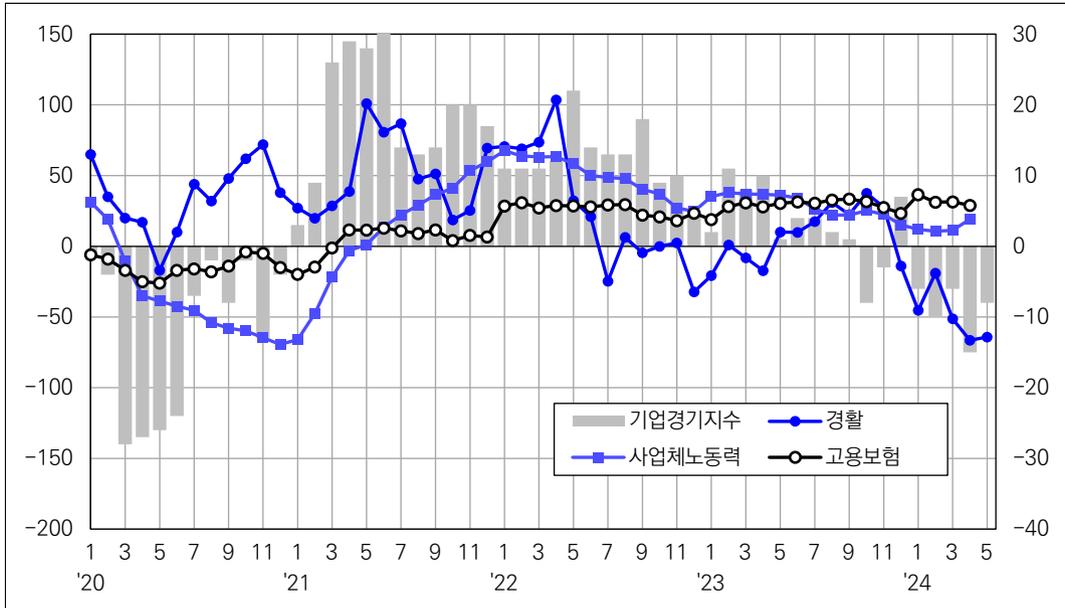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9]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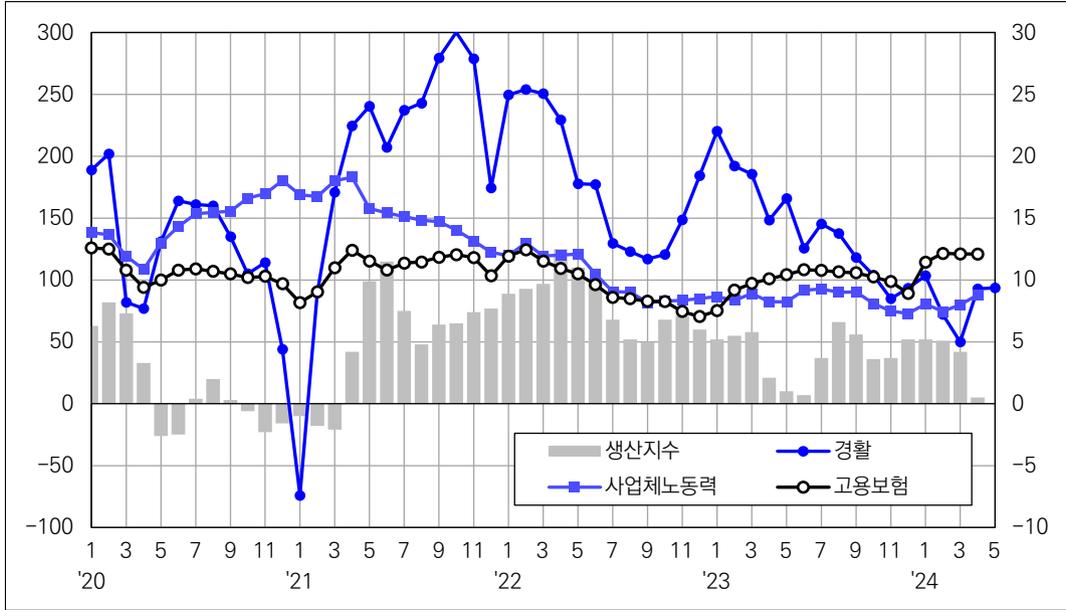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김종욱,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 2024년 3월 명목임금 전년동월대비 2.9% 상승

- 2024년 3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01만 원(2.9%)이었음.
    - 2024년 3월 상용근로자 임금(425만 5천 원)과 일용근로자 임금(184만 8천 원)은 전년동월 대비 각각 3.0%, 4.5% 상승하였음.
    - 상용근로자의 임금 증가는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 증가 영향이 컸고,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 증가는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건설업 임시일용근로자의 증가 영향이 컸음.
    - 상용근로자의 초과급여(8.6%)는 건설업과 광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특히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38.8%), 교육서비스업(16.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4%), 운수 및 창고업(11.3%) 부문에서 크게 증가하였고, 이들 산업의 초과근로시간은 전 산업 평균(3.8%)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 2024년 1분기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은 421만 6천 원으로 전년 동분기대비 1.3% 상승하였음.
    -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가 전년동분기대비 크게 하락하였음(-10.0%). 특별급여가 크게 감소한 산업은 제조업(-24.6%)이었으며, 제조업 중에서도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 특별급여 감소(-33.6%)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음.<sup>2)</sup>
- ※ 초과급여 :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 2024년 3월 실질임금 전년동월대비 0.2% 하락

- 3월 소비자물가지수(2020=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하락폭이 둔화됨.

2)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는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사업체 규모를 구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체는 상용근로자가 1~299인, 대규모 사업체는 상용근로자 수 300인 이상 규모를 의미함.

〈표 1〉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20=100.0)

	2020	2021	2022	2023	2023		2024		
					1~3월	3월	1~3월	3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527 ( 1.1)	3,689 ( 4.6)	3,869 ( 4.9)	3,869 ( 4.9)	4,164 ( 2.0)	3,897 ( 1.6)	4,216 ( 1.3)	4,010 ( 2.9)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719 ( 0.4)	3,893 ( 4.7)	4,095 ( 5.2)	4,095 ( 5.2)	4,426 ( 2.4)	4,130 ( 2.0)	4,216 ( 1.3)	4,255 ( 3.0)
	정액급여	3,077 ( 2.2)	3,181 ( 3.4)	3,319 ( 4.3)	3,319 ( 4.3)	3,428 ( 4.3)	3,425 ( 4.4)	3,544 ( 3.4)	3,534 ( 3.2)
	초과급여	200 (-0.9)	208 ( 3.7)	220 ( 5.7)	220 ( 5.7)	211 (-0.2)	217 (-2.3)	229 ( 8.5)	236 ( 8.6)
	특별급여	441 (-9.9)	504 (14.3)	556 (10.4)	556 (10.4)	787 (-4.5)	488 (-10.9)	708 (-10.0)	485 (-0.6)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636 ( 7.8)	1,700 ( 3.9)	1,747 ( 2.8)	1,747 ( 2.8)	1,731 ( 0.9)	1,768 ( 1.3)	1,808 ( 4.5)	1,848 ( 4.5)	
소비자물가지수	105.7 ( 0.5)	104.0 ( 2.5)	109.3 ( 5.1)	109.3 ( 5.1)	110.3 ( 4.6)	110.5 ( 4.2)	113.6 ( 3.0)	113.9 ( 3.1)	
실질임금증가율	0.5	2.0	-0.2	-0.2	-2.5	-2.5	-1.7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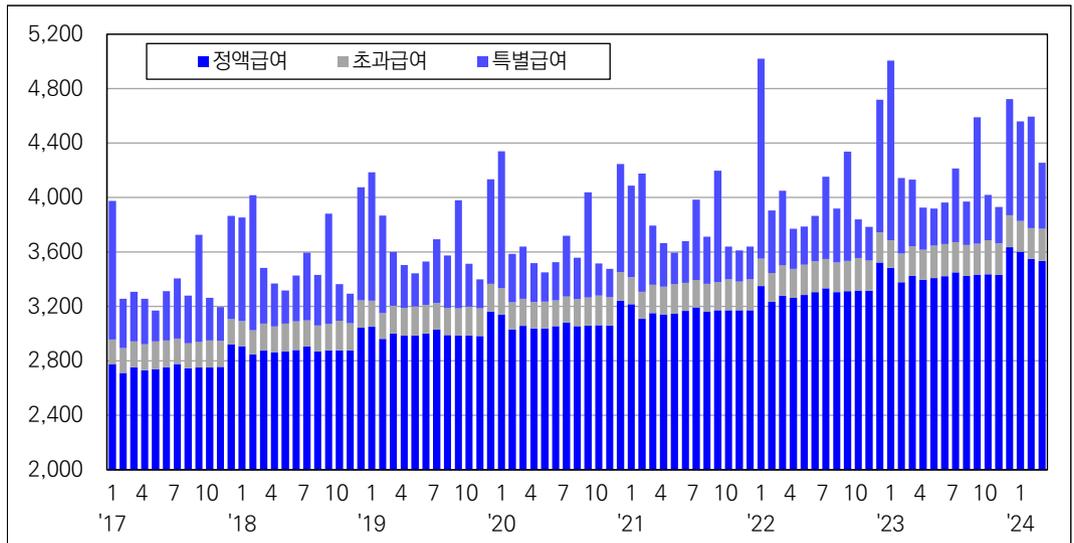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https://kosis.kr/>

〈그림 1〉 상용근로자의 임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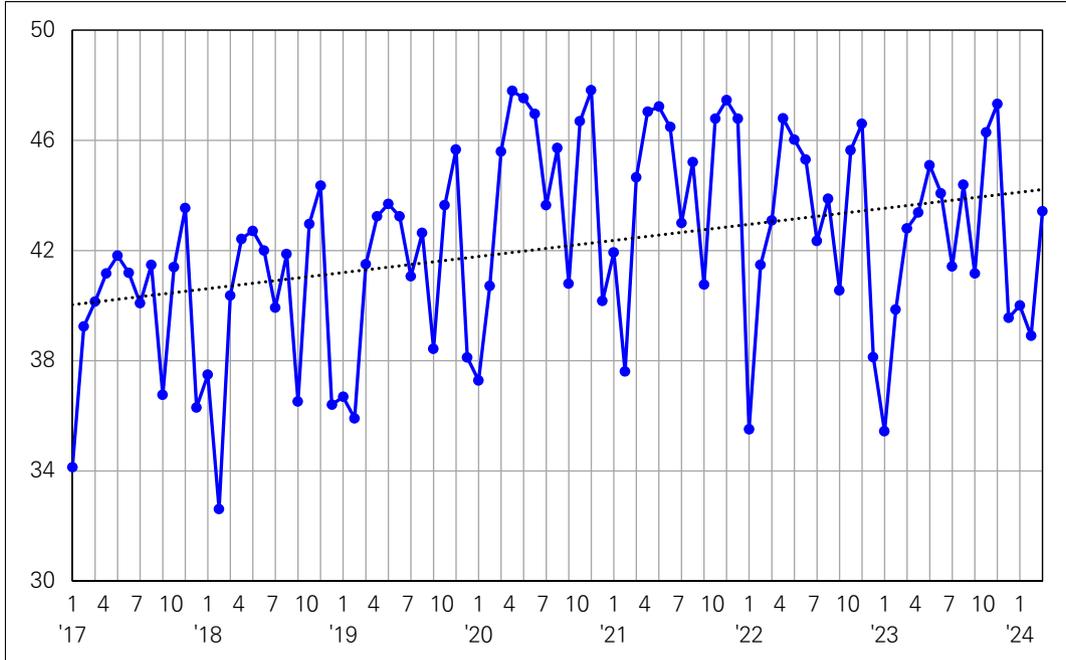
(단위 : 천 원)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2] 임시일용근로자의 상대임금 비율

(단위 : %, 상용근로자 임금=1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4년 3월 중소기업 · 대규모 사업체 모두 전년동월대비 임금상승폭 확대

○ 2024년 3월 중소기업(상용근로자 1~299인) 사업체의 임금(358만 2천 원)은 전년동월대비 3.1% 상승, 대규모(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611만 1천 원)은 전년동월대비 2.5% 상승하였음.

- (전년동월대비) 중소기업 사업체의 임금상승폭 확대는 상용근로자의 초과급여와 특별급여가 증가로 전환한 영향이 컸으며,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폭 확대는 초과급여의 증가폭 확대와 특별급여의 감소폭 둔화 영향으로 보임.
- 중소기업 사업체의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5.4% 상승한 반면 대규모 사업체의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5.6% 하락하였음.
- (1분기) 중소기업 사업체의 임금은 전년동분기대비 3.1% 상승한 반면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은 특별급여의 감소폭이 확대된 영향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3% 하락하였음.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천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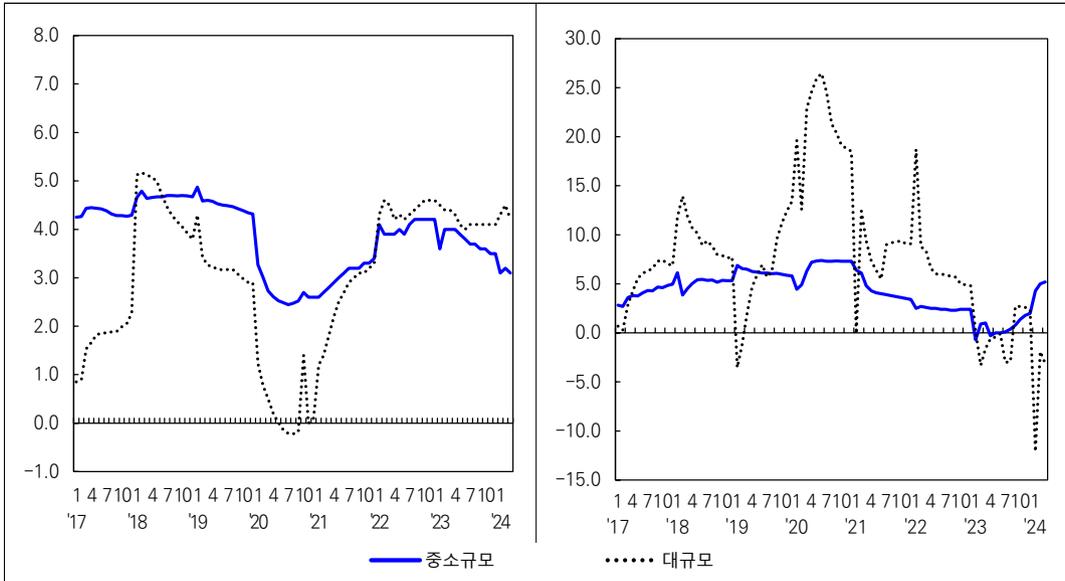
		2022	2023	2023		2024	
				1~3월	3월	1~3월	3월
중소 규모	소 계	3,462 ( 4.4)	3,537 ( 2.2)	3,581 ( 1.8)	3,475 ( 1.4)	3,691 ( 3.1)	3,582 ( 3.1)
	상용임금총액	3,675 ( 4.7)	3,767 ( 2.5)	3,815 ( 2.3)	3,694 ( 1.9)	3,933 ( 3.1)	3,810 ( 3.2)
	정액급여	3,139 ( 4.2)	3,249 ( 3.5)	3,229 ( 4.0)	3,222 ( 4.2)	3,330 ( 3.1)	3,319 ( 3.0)
	초과급여	186 ( 5.7)	187 ( 0.8)	174 (-3.2)	182 (-5.1)	189 ( 8.7)	196 ( 7.9)
	특별급여	350 ( 8.7)	331 (-5.3)	412 (-7.8)	290 (-15.1)	415 ( 0.6)	295 ( 1.7)
	임시일용임금총액	1,711 ( 2.4)	1,746 ( 2.0)	1,688 ( 1.0)	1,735 ( 1.2)	1,775 ( 5.2)	1,829 ( 5.4)
대규모	소 계	5,922 ( 6.1)	6,071 ( 2.5)	7,028 ( 1.2)	5,963 ( 0.9)	6,793 (-3.3)	6,111 ( 2.5)
	상용임금총액	6,049 ( 6.4)	6,212 ( 2.7)	7,197 ( 1.4)	6,095 ( 1.0)	6,957 (-3.3)	6,256 ( 2.6)
	정액급여	4,155 ( 4.6)	4,325 ( 4.1)	4,330 ( 4.4)	4,338 ( 4.3)	4,513 ( 4.2)	4,501 ( 3.8)
	초과급여	377 ( 5.5)	406 ( 7.6)	381 ( 5.2)	377 ( 2.6)	411 ( 7.8)	415 (10.0)
	특별급여	1,516 (11.8)	1,481 (-2.3)	2,485 (-3.8)	1,379 (-8.7)	2,032 (-18.2)	1,340 (-2.9)
	임시일용임금총액	2,321 ( 4.8)	2,375 ( 2.3)	2,397 (-1.6)	2,278 ( 1.8)	2,323 (-3.1)	2,149 (-5.6)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좌, 누계)과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증가율(우, 누계) 추이 (단위: %)



주: 1인 기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4년 3월 금융 및 보험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임금 증가

○ 2024년 3월 임금상승폭이 컸던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16.1%), 운수 및 창고업(12.5%)이었음.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의 임금 증가는 중소기업(27.2%), 운수 및 창고업의 임금 증가는 대규모 기업(38.2%)에서 특별급여가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보임.
- 3월 기준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994만 7천 원)이었고,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08만 8천 원)이었음.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천 원, %)

	2022	2023	2023		2024	
			1~3월	3월	1~3월	3월
전 산업	3,869 ( 4.9)	3,966 ( 2.5)	4,164 ( 2.0)	3,897 ( 1.6)	4,216 ( 1.3)	4,010 ( 2.9)
광업	4,608 ( 4.4)	4,636 ( 0.6)	4,712 ( 2.5)	4,723 ( 5.0)	4,982 ( 5.7)	4,830 ( 2.3)
제조업	4,484 ( 5.8)	4,633 ( 3.3)	5,072 ( 2.5)	4,415 ( 3.8)	4,932 (-2.8)	4,532 ( 2.6)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907 ( 2.3)	7,188 ( 4.1)	7,885 (15.7)	8,568 ( 0.6)	8,646 ( 9.6)	9,947 (16.1)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4,168 ( 1.8)	4,297 ( 3.1)	4,207 ( 2.4)	4,134 ( 2.0)	4,419 ( 5.0)	4,393 ( 6.3)
건설업	3,229 ( 4.0)	3,359 ( 4.0)	3,376 ( 4.2)	3,326 ( 5.1)	3,516 ( 4.1)	3,441 ( 3.5)
도매 및 소매업	3,773 ( 6.3)	3,921 ( 3.9)	4,017 ( 4.3)	3,900 ( 2.3)	4,163 ( 3.6)	4,040 ( 3.6)
운수 및 창고업	4,040 ( 6.5)	4,185 ( 3.6)	4,170 ( 5.2)	3,949 ( 4.2)	4,412 ( 5.8)	4,444 (12.5)
숙박 및 음식점업	2,004 ( 5.2)	2,097 ( 4.7)	2,094 ( 6.3)	2,038 ( 4.5)	2,172 ( 3.7)	2,088 ( 2.4)
정보통신업	4,999 ( 4.2)	5,120 ( 2.4)	5,503 ( 1.4)	5,251 ( 5.1)	5,745 ( 4.4)	5,479 ( 4.3)
금융 및 보험업	7,324 ( 5.2)	7,338 ( 0.2)	8,494 (-4.6)	7,763 (-11.5)	8,421 (-0.9)	7,545 (-2.8)
부동산업	3,086 ( 4.5)	3,117 ( 1.0)	3,150 (-2.0)	3,085 (-1.7)	3,234 ( 2.7)	3,185 ( 3.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376 ( 5.3)	5,464 ( 1.6)	5,630 ( 1.8)	5,316 ( 1.3)	5,663 ( 0.6)	5,289 (-0.5)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2,584 ( 3.7)	2,687 ( 4.0)	2,678 ( 2.9)	2,590 ( 2.1)	2,800 ( 4.5)	2,732 ( 5.5)
교육서비스업	3,435 ( 2.4)	3,508 ( 2.1)	3,735 ( 1.9)	3,650 ( 2.7)	3,875 ( 3.7)	3,841 ( 5.2)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122 ( 3.6)	3,132 ( 0.3)	3,140 ( 0.2)	3,043 ( 0.3)	3,227 ( 2.8)	3,119 ( 2.5)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77 ( 2.8)	3,058 (-0.6)	3,145 ( 0.2)	2,915 (-0.8)	3,202 ( 1.8)	2,997 ( 2.8)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832 ( 4.9)	3,009 ( 6.2)	3,081 ( 7.2)	3,039 ( 9.9)	3,134 ( 1.7)	3,020 (-0.6)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3)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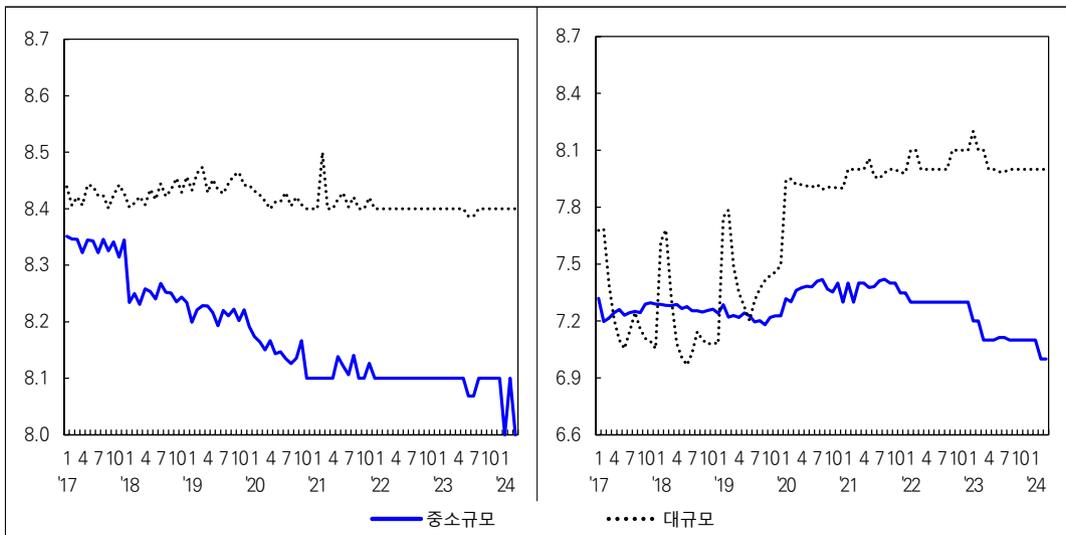
- (1분기) 제조업(-2.8%)과 금융 및 보험업(-0.9%)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임금은 전년동분기 대비 상승하였음. 제조업 부문 상용근로자의 임금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 특별 급여가 크게 감소한 영향이 컸음.

◆ 2024년 3월 근로시간 감소는 근로일수 감소(-2일) 등 영향

- 2024년 3월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3.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2.2시간 감소하였음.
  -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161.4시간)과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87.1시간)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12.5시간, 7.5시간 감소하였음.
  -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이며, 월력상 근로일수가 2일 감소한 영향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하였음.
  -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소는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임시일용근로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임.
- 2024년 3월 중소기업의 근로시간(152.9시간)과 대규모 기업의 근로시간(158.6시간)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12.5시간, 10.7시간 감소하였음.

[그림 4]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좌, 누계)과 임시일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우, 누계) 추이

(단위 : 시간/일)



주 :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전체 근로시간을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전체 근로일수로 나눈 것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표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22	2023	2023		2024	
				1~3월	3월	1~3월	3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58.3(-1.2)	155.3(-1.9)	156.8( 2.8)	165.4( 3.2)	153.8(-1.9)	152.9(-7.6)
	상용 총근로시간	165.9(-1.1)	164.0(-1.1)	165.2( 3.7)	174.5( 4.0)	162.5(-1.6)	161.7(-7.3)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8.2(-1.2)	156.7(-0.9)	158.4( 4.4)	167.4( 4.8)	155.4(-1.9)	154.2(-7.9)
	상용 초과근로시간	7.7( 0.0)	7.3(-5.2)	6.8(-10.5)	7.2(-11.1)	7.1( 4.4)	7.4( 2.8)
	임시일용 근로시간	96.4(-1.0)	88.2(-8.5)	89.2( -5.7)	93.0( -3.5)	84.7(-5.0)	85.7(-7.8)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0.4(-1.2)	160.5( 0.1)	161.5( 4.8)	169.3( 5.3)	159.8(-1.1)	158.6(-6.3)
	상용 총근로시간	161.7(-1.0)	162.1( 0.2)	163.1( 5.2)	171.1( 5.6)	161.5(-1.0)	160.4(-6.3)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0.6(-1.1)	150.9( 0.2)	152.4( 5.7)	160.5( 6.4)	150.3(-1.4)	149.1(-7.1)
	상용 초과근로시간	11.0(-0.9)	11.2( 1.8)	10.7( -2.7)	10.6( -6.2)	11.1( 3.7)	11.3( 6.6)
	임시일용 근로시간	125.0(-2.3)	117.5(-5.9)	118.6( -3.3)	118.9( -2.1)	115.7(-2.4)	110.8(-6.8)

주: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4년 3월 모든 산업 전년동월대비 근로시간 감소

- 2024년 3월 전년동월대비 근로시간이 크게 감소한 산업은 교육서비스업(-8.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7%), 금융 및 보험업(-8.7%) 순이었음.
-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제조업(169.5시간), 광업(168.9시간) 순이었고,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28.0시간)이었음.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시간, %)

	2022	2023	2023		2024	
			1~3월	3월	1~3월	3월
전 산업	158.7(-1.2)	156.2(-1.6)	157.6( 3.1)	166.1( 3.6)	154.8(-1.8)	153.9(-7.3)
광업	174.8(-2.8)	168.5(-3.6)	170.7( 1.3)	183.9( 2.2)	166.9(-2.2)	168.9(-8.2)
제조업	171.1(-1.4)	170.5(-0.4)	171.7( 4.1)	181.8( 4.5)	169.9(-1.0)	169.5(-6.8)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58.6(-1.9)	160.0( 0.9)	159.3( 4.7)	156.3( 7.6)	156.1(-2.0)	155.8(-0.3)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174.4(-1.4)	170.0(-2.5)	170.9( 0.9)	178.4( 0.2)	169.0(-1.1)	168.0(-5.8)
건설업	134.3(-1.2)	128.7(-4.2)	130.6( 0.5)	138.8( 2.4)	128.2(-1.8)	128.0(-7.8)
도매 및 소매업	162.3(-0.9)	159.2(-1.9)	161.2( 3.0)	169.1( 2.9)	157.4(-2.4)	156.0(-7.7)
운수 및 창고업	160.6( 0.2)	160.6( 0.0)	160.5( 4.0)	168.1( 4.5)	159.2(-0.8)	158.7(-5.6)
숙박 및 음식점업	146.5(-1.3)	138.8(-5.3)	139.1(-1.0)	143.8(-2.2)	136.9(-1.6)	136.2(-5.3)
정보통신업	162.7(-0.9)	162.2(-0.3)	163.6( 4.7)	172.5( 4.8)	161.9(-1.0)	159.6(-7.5)
금융 및 보험업	159.8(-1.3)	159.3(-0.3)	162.5( 6.3)	171.5( 6.5)	158.9(-2.2)	156.5(-8.7)
부동산업	169.4(-1.4)	167.5(-1.1)	168.3( 3.1)	176.7( 3.2)	166.6(-1.0)	166.5(-5.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0.3(-0.8)	158.8(-0.9)	160.5( 4.4)	169.7( 4.8)	157.8(-1.7)	156.5(-7.8)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159.8(-1.4)	158.2(-1.0)	159.3( 3.0)	167.1( 3.3)	157.5(-1.1)	156.0(-6.6)
교육서비스업	136.1(-0.8)	135.9(-0.1)	136.8( 5.2)	146.3( 7.3)	132.8(-2.9)	133.3(-8.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5.3(-1.9)	150.7(-3.0)	151.8( 1.6)	160.2( 2.3)	147.9(-2.6)	146.3(-8.7)
여가 관련 서비스업	150.8(-1.2)	148.2(-1.7)	149.6( 3.4)	156.6( 2.5)	144.5(-3.4)	144.4(-7.8)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0.3(-1.3)	160.3( 0.0)	161.6( 4.3)	169.2( 4.8)	158.6(-1.9)	158.2(-6.5)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3)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24년 5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조정사건 건수는 6건
  - － 5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13건)보다 7건 적은 수치임.
- 2024년 5월 조정성립률 33.3%
  - － 5월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월 성립률 14.3%보다 19.0%p 높은 수치임.

〈표 1〉 2023년, 2024년 5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 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24. 5.	6	8	2	1	1	4	0	4	0	2	4	33.3%
2023. 5.	13	9	1	0	1	6	1	5	1	1	9	14.3%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중재사건

- 2024년 5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중재사건 건수는 0건
  - － 5월 중재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1건)보다 적은 수치임.
  -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건수는 0건임.

〈표 2〉 2023년, 2024년 5월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진행 중
		소계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2024. 5.	0	1	1	0	0	0
2023. 5.	1	1	0	0	1	1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심판사건

- 2024년 5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 건수는 200건
  - 5월 심판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225건)보다 25건 적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24.7%(45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75.3%(137건)를 차지함.

〈표 3〉 2023년, 2024년 5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4. 5.	200	182	38	7	105	4	16	12	578
2023. 5.	225	136	26	8	62	6	12	22	519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2024년 5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사건 건수는 6건
  - 5월 복수노조사건<sup>1)</sup>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10건)보다 4건 적은 수치임.
  -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0.0%(0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100.0%(4건)를 차지함.

〈표 4〉 2023년, 2024년 4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4. 5.	6	4	0	0	3	1	0	0	11
2023. 5.	10	7	5	0	2	0	0	0	12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1) 복수노조사건은 교섭요구, 교섭대표, 교섭단위,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

### ◆ 정부, 최저임금위 위원 26명 위촉

- 5월 12일 고용노동부는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 이번 위촉은 위원 27명(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9명) 중 5월 13일로 3년간의 임기가 만료되는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과, 보궐위원 1명(근로자위원)이 대상임.
-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 8명은 권순원 교수(연임)·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안지영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연임)·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임.
- 최저임금위원회는 5월 21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의 심의요청서 접수, 위원장 선출 등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 착수하였음.
- 이날 회의는 2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 후 열린 첫 회의로 이인재 인천대 교수(경제학)를 최저임금위 위원장으로 선출했고, 공익위원 간사는 21대에 이어 22대도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가 맡게 됐음.
-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함.
-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하고,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함.
- 임기는 2024년 5월 14일부터 2027년 5월 13일까지 3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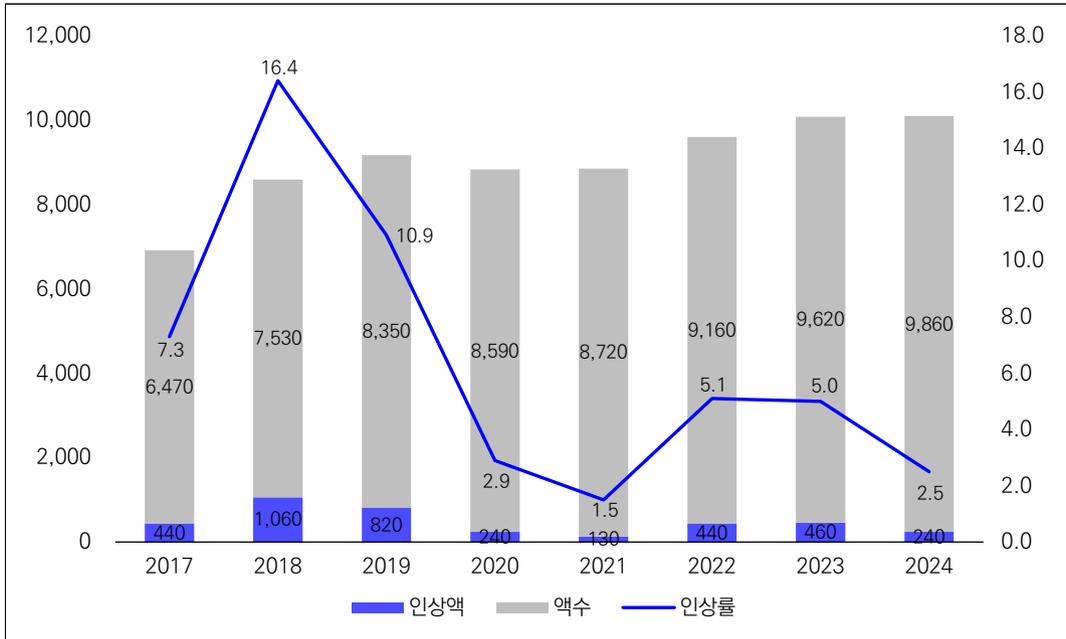
###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플랫폼 노동 최저임금 보장’이 쟁점

- 5월 21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열렸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이 위촉되었음.
- 올해 최저임금 쟁점은 2가지로, ‘업종별 차등, 플랫폼 노동의 최저임금 보장’임.
- 6월 11일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더 오르면 신규 채용 중단이나 기존 인력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음.
-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낮은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의 필요성과 가사서비스 등 돌봄 업종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반면, 노동계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법원 판례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이들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재차 요구 하였고, 사업주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를 근거로, 최저임금 상승으로 사업주들이 이윤, 제품가격, 인건비, 신규 채용, 근로시간 등에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음.

- 지난 3년간('21,'22,'23년)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회의부터 확정일까지 평균 91일이 소모되었고, 평균 인상액 380원, 인상률은 4.2%였음.

[그림 1]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 ◆ 윤석열 정부 ‘노동법원’ 추진

- 5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임기 중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달라”며 “노동부와 법무부가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사법부와도 협의를 해달라”고 주문했음.
- 이후 이성희 고용부 차관과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만나 노동법원 설립 논의와 관련된 일정, 방향, 원칙들을 논의하는 등 실무 협의에 들어갔음.
- 정부 차원의 노동법원 추진은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했고, 이후 18대부터 21대 국회까지 노동법원 신설 법안이 꾸준히 발의됐으나, 입법부 차원의 논의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번번이 폐기됐음.

- 사법부는 노동법원 설치에 긍정적임. 이종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2019년 ‘노동쟁송절차 개선 연구’에 따르면 판사 3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6.3%가 노동법원 설치에 찬성했음.
- 노동 전담 재판부 경험이 있는 판사만 따지면 찬성률이 83.8%로 올라갔음.
- 노동법원이 필요한 이유로는 82.5%가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된 현행 노동쟁송절차를 노동법원으로 통일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음.
- 반면, 반대의견으로 현재 노동위원회가 원활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노동법원을 분리하면 오히려 해결이 지체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음.
-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처리 사건 96.6%가 노동위 단계에서 종결됨.

◆ 노사 88% “노동위 사건처리 공정해”

- 5월 19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심판 사건 신청인과 피신청인 468명(노동자 230명, 사용자 2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전체 응답자의 89.3%가 노동위원회 위원과 조사관의 전문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 노동자가 사용자보다 노동위 사건처리를 더 공정하게 인식했음. “노동위 사건처리 과정이 공정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노동자는 90.4%가, 사용자는 85.7%가 동의했음.
- 노동위 사건처리 과정이 공정하다는 인식은 심판 사건에서 이긴 사람(95.9%)과 화해·취하를 결정한 사람(89.6%)에게서 높았음.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88.5%, 심판에서 진 경우 72.9%가 노동위 사건처리 과정을 공정하다고 판단했음.
- 전체 응답자 중 노동위 조정으로 화해하거나 사건을 취하한 사람은 297명, 심판 결과 승자와 패자는 각 72명, 73명으로 집계됐고, 사건 심판을 진행 중인 사람은 26명이었음.
- 설문조사는 4월 9~18일에 진행했음.

◆ 대법 “특수고용직도 사업주에 직장 내 괴롭힘 책임 물을 수 있다”

- 5월 17일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건국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일하던 캐디 배씨 사망사건에서 건국대 법인이 낸 상고를 기각했다고 하였음.
- 2019년 7월부터 건국대가 운영하는 경기 파주시 KU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배씨(사망 당시 27세)는 캐디들을 통솔·관리하는 ‘캡틴’ A씨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다 2020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 골프장 캐디는 대표적인 특수고용직 노동자임.
-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배씨 유족이 가해자 A씨, 건국대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음.

-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건국대의 배상책임 범위를 설명하면서 “사업주인 건국대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이었던 배씨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고(산안법 5조, 77조, 시행령 67조 참조),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알 수 있었음에도 배씨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배씨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이번 대법원 판결은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괴롭힘 방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임.

#### ◆ 중대재해법 적용 후 5~49인 사업장 산재 사망 12% 줄어

- 5월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재 현황 부가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38명으로 전년(128명)보다 10명(7.8%) 증가했음.
-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은 78명으로 전년보다 1명(1.3%) 감소했음.
-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5~49인 사업장으로 범위를 좁히면 44명으로 전년보다 6명(12.0%) 감소했음.
-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음. 정부·여당은 5~49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음. 50인 이상은 사고사망자가 60명으로 11명(22.4%) 증가했음.
-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은 64명으로 1명 줄었고, 제조업은 31명으로 전년과 사고사망자 수가 같았음. 건설·제조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은 43명으로 11명(34.4%) 늘었음.
- 노동부는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관련 업종의 산업활동이 증가한 것이 1분기 사고사망자가 증가한 원인이라고 분석했음.

#### ◆ 경기도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100곳 확보

- 5월 22일 경기도는 “카페·공방 등 민간공간을 적극 활용해 청년들의 접근성이 높은 활동공간을 대폭 확보하는 ‘경기도 생활밀착형 청년공간’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 현재 도 내에는 도비 또는 시·군비를 지원해 별도 조성한 청년공간이 41곳 있고, 스튜디오, 창작·휴식, 취·창업 준비,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음. 지난해 43만 명이 이용했음.

- 경기도는 이런 청년공간 외에도 청년들의 생활반경 안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선호도가 높은 카페·공방 등 민간공간을 청년공간으로 추가 활용하기로 한 것임.
- 경기도는 도비 100%로 약 3억 원을 투입해 민간 사업장의 공간 일부를 청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주소지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년들이 예약해 개인이나 단체로 사용하면 됨.

#### ◆ 방과후강사 10명 중 7명 “늘봄학교로 수입 줄어”

- 5월 20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전국 방과후강사 1,08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였음.
- 조사 결과 79%가 수업 중인 학교에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개설된 상황이라고 답했음.
- 강사의 73.7%는 “방과후학교 학생이 줄었거나 강사로 체계가 바뀌어 수업이 줄었다”고 답했음.
- 이번 조사에서도 맞춤형 프로그램 수업에 들어간다는 강사는 14.8%였는데, 수업을 하지 않는 이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복수응답) 68.4%가 방과후강사 수업과 맞춤형 프로그램 시간이 겹친다고 답했음. 이 외에 45.1%는 강사료가 적어서, 27.3%는 기존 방과후강사들을 뽑지 않는다고도 답했음.
- 늘봄학교란 기존의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늘리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으로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체제임.

#### ◆ 서울 맞벌이 가정, 네 집 중 한 집은 “우울”, 하루 중 휴식은 1시간

- 5월 29일 서울연구원은 ‘2023년 서울양육자서베이’와 서울 영유아 양육 여건·양육자의 정신건강 양육 스트레스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맞벌이 부부의 고충을 정리한 ‘서울 워킹맘·워킹대디의 현주소’ 인포그래픽스를 발행했음.
- 서울연구원에서 만 0~9세 자녀를 둔 서울 맞벌이 부부 5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23.6%는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불면증과 불안감을 경험한 비율은 각각 20.8%, 15.8%로, 8.6%는 자살 생각까지도 한 경험이 있었음.
- 최근 3개월간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묻는 항목에 맞벌이 가정 여성의 43.7%가, 남성 38.8%가 ‘일에 치이다 보니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잊을 때가 있다’고 답했음.
- 여성의 36.5%, 남성의 34.8%가 ‘일이 바빠서 내 삶에 대한 비전과 반성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문항에 ‘그렇다’고 답했음. ‘일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풀기도 했음’(여성 30.2%, 남성 14.7%), ‘퇴근 후에도 일에 대한 걱정을 했음’(여성 31.1%, 남성 34.0%) 등의

- 항목에도 유의미한 응답률을 보였음.
- 맞벌이 부부의 하루 휴식시간은 1시간 남짓에 불과했음. 맞벌이 가정 여성이 1.4시간, 남성이 1.5시간이라고 휴식시간을 추정했음.
  - 하루 전체 일과를 보면 여성의 가사·자녀 돌봄 시간이 남성의 2배가량을 기록했음. 가사·자녀 돌봄은 여성이 3.4시간, 남성이 1.8시간을 기록했음. 직장생활·경제활동 시간은 여성이 7.5시간, 남성이 8.9시간으로 조사됐음.

#### ◆ 기업 10곳 중 7곳 “11년 이내 저출생·고령화로 경제위기 닥칠 것”

- 5월 29일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 응답 기업 120개사 가운데 68.3%가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경제위기 도래 가능성을 묻는 항목에 ‘그렇다’로 답했다고 밝혔음.
- 응답 기업들은 저출생·고령화 속도가 지금처럼 유지될 경우 평균 11년 이내에 경제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했음. 6~10년 이내에 위기가 올 것이라는 응답은 42.7%, 11~15년 25.6%, 16~20년 13.4%, 1~5년 12.2% 순이었음.
- 저출생·고령화가 기업에 미칠 영향 중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절반(45.8%)이 ‘원활한 인력 수급’을 꼽았고, 시장수요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19.2%), 인력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17.5%), 인구구조 급변 및 시장변화에 따른 사업구조 변경의 어려움(15.0%)이 뒤를 이었음.
- 응답 기업의 35%는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고령인력 활용 환경 조성’을 꼽았음. 고령인력 재교육 확대 등 고령층 취업기회 확대(29.2%), 근로시간 유연화, 보육 부담 완화 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24.2%), 취업비자 발급요건 완화 등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7.5%) 등도 필요하다고 봤음.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적 제도가 있지만 기업 5곳 중 1곳(22.5%)은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음.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37.0%), 기업의 인식 및 의지 부족(25.9%), 경직적인 기업 문화(25.9%) 등임.
- 일·가정 양립제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41.7%),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지원(35.8%), 중소기업 지원 및 정책자금 확대(18.3%)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음.
- 기업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40.0%), 유연근로제 확산(23.3%),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14.2%),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 확충(8.3%) 등을 꼽았음.

◆ 지자체 女공무원 비중, 男 첫 역전

- 6월 4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 통계'를 보면, 2023년 말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 수는 15만 7,935명이었고, 이는 전체 공무원 31만 3,296명의 50.4% 수준임.
- 지역별로 부산의 여성 공무원 비율이 5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서울 54.4%, 인천 53.6% 순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경북 44.1%였음.
- 하지만 간부급인 1~4급 일반직 여성 공무원 중 비중은 18.8%에 불과했음.
- 1~4급 여성 공무원의 비중은 2021년 13.3%, 2022년 15.4%로 늘어나는 추세지만 20%가 채 되지 않는 수치임.
- 특히 1급은 전체 7명 중 1명(14.3%), 2급은 88명 중 3명(3.4%)에 그쳤음. 3급은 433명 중 55명(12.7%), 4급은 3,341명 중 668명(20%)이 여성이었음.
- 국가직 1~3급 상당 공무원을 뜻하는 고위공무원을 보면, 지자체에 소속된 40명 중에서 여성은 3명뿐이었음. 부산은 1~4급 여성 공무원 비율도 35.1%로 가장 높았음. 서울이 24%, 울산이 23.4%로 뒤를 이었음.

◆ 콜센터 노동자 10명 중 6명 '반복적 악성민원' 경험

- 6월 5일 공공운수노조는 콜센터 노동자 79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였음.
- 응답자들이 최근 5년간 경험한 악성민원의 종류로 '장시간 응대'가 90.9%로 가장 많은 악성민원에 해당했고, 이어 폭언이 77.9%, 반복민원이 60.1%, 업무와 무관한 민원이 54.5%로 뒤를 이었음. 성희롱을 경험한 노동자들도 12.8%나 됐음.
- 악성민원으로 받은 영향으로는 17.5%가 심리상담 및 병원 치료, 43.1%가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고 답했음.
- 악성민원을 경험한 뒤 대응방법으로는 10명 중 9명꼴인 91.2%가 "개인적으로 참는다"고 답했음.
- '고객응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주는 직장 내 공식적 제도가 있는지' 질문에는 33.6%만 있다는 답을 골랐고, 28.9%는 '모른다', 33.6%는 '없다'고 답했음.

(조규준,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